



즉시 배포용: 2023년 10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증오 및 편견 사건을 신고하기 위한 새로운 핫라인 및 온라인 양식 출시 발표**

*차별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재차 강조*

*증오나 편견의 영향을 받는 뉴욕 주민들은 844-NO-2-HATE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HBPU에 사건 신고 가능*

*HBPU, 모든 형태의 혐오를 비난하고 뉴욕 주민들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사건을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장려*

*Hochul 주지사가 하마스 테러 이후 이스라엘 분쟁을 계기로 증오와 편견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발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인권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의 증오 및 편견 방지 부서(Hate and Bias Prevention Unit)와 협력하여 뉴욕 주민들이 증오 및 편견 사건을 HBPU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화 핫라인과 온라인 양식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HBPU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증오나 차별과 관련된 사건을 경험한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의 발표와 알림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폭력 사태의 여파에 따라 뉴욕주 전역과 미국 전역의 유대인, 아랍, 무슬림 및 기타 공동체가 편견과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는 비겁한 행동이며, 어떤 뉴욕 주민도 증오로 인한 차별을 견뎌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형태의 혐오가 생명을 앗아가는 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혐오가 나타나는 즉시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이며,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핫라인을 개설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심한 상실과 엄청난 비극의 시기에 우리는 증오에 대한 파괴적인 충동에 굴복할 수 없고, 대신 사랑의 무한한 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뉴욕은 이 순간이 우리를 갈라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나 배경에 관계없이 이 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증오로부터 보호받고 사랑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이 비극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인권부의 증오 및 편견 예방 부서(Hate and Bias Prevention Unit, HBPU)는 모든 형태의 증오를 비난하고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증오와 편견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긴급 상황과 실시간 사고는 911에 먼저 문의해야 하지만, HBPU는 증오나 차별과 관련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지역사회의 혐오 방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뉴욕 주민이 HBPU에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HBPU는 불만 제기, 교육 프로그램 구성, 커뮤니티 대화 주최, 분쟁 해결 지원 등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부서가 844-NO-2-HATE에 사고 신고 전용 핫라인을 개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반 대중도 [HBPU의 온라인 신고 양식](#)을 통해 사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지난 9월 유대인 역사 센터(Center for Jewish History)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러한 새로운 보고 메커니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aria L. Imperial** 인권 담당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부는 뉴욕 주민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주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와 반무슬림 편견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집에서 혐오를 해소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모두를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오 및 편견 예방 부서의 **Joan Pangilinan-Taylor** 수석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 및 편견 예방 부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유대주의나 반무슬림 편견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 없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환영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모든 개인이 증오 또는 편견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주 초 Hochul 주지사는 [17명의 주지사로 구성된 초당파 연합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연대해 연방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한 비난을 표명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스라엘 대통령 **Isaac Herzog**를 [지지](#)하고 **Gilad Erdan** 이스라엘 유엔 대사를 [만나](#) 이스라엘 위기에 대한 뉴욕의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알바니](#)에서 [뉴욕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 여러 번의 철야 및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 랜드마크에 이스라엘 국기의 색상인 파란색과 흰색으로 [점등](#)하고, 알바니에 있는 주지사 관저 위로 이스라엘 국기를 [게양](#)했으며, 하마스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주 건물에 반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2년 12월 Hochul 주지사가 출범하고 Antonio Delgado 부지사가 의장을 맡은 HBPU는 주 전역의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10개의 지역 증오 및 편견 예방 위원회(Hate and Bias Prevention Councils)를 설립했습니다. 증오 및 편견 예방 위원회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종교 단체, 법 집행 기관, 정부 기관 및 기타 옹호 단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HBPU는 또한 증오 또는 편견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신속 대응 이니셔티브를 감독합니다. 증오 및 편견 방지 부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